



2011 SonKeeChung Peace Marathon YTN 손기정 평화마라톤 대회

• 일시 : 2011년 11월 20일(일) 09:00 • 장소 :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 종목 : 풀코스, 하프코스, 10km코스, 5km코스



2011년 9월 <제 94 호>

• 발행인 : 배석규 • 편집 : 홍보팀 • 100-998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6-1 YTN타워
• Tel : 02-398-8000 • 제보 : 02-398-8282 / 02-398-8585 • 휴대폰 YTN뉴스 청취 : 200-2424



designed by TIG

•마라톤 대회 홈페이지 : www.sonkeechungrun.com



주 제 "희망 함께 달린다"
주 최 YTN 손기정기념재단 www.marathon1936.com
주 관 YTN 손기정 평화마라톤 사무국
문 의 070 - 7465 - 2847



02 커버스토리 _ YTN, 그리고 세계

- ① YTN을 통해 세상을 본다! _ 박대원
- ② 지구촌 곳곳의 월드리포터와 특파원
- ③ YTN월드 리포터 _ 김미진
- ④ 세계를 향한 통로, 신호분배실 _ 최영훈
- ⑤ 글로벌 코리아 _ 김여진
- ⑥ 해외 취재기 - 캄보디아 해외봉사단 동행취재 _ 정재기
- ⑦ YTN 제3회 고등학생 영어토론대회 수상기 _ 유소윤

16 특별기고

스마트 시대, SNS와 방송미디어 _ 표현명

18 핫이슈

- ① 상암동 미디어센터 터파기 시작
- ② 영상편집부 새얼굴

20 현장취재기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취재기 _ 김상익
앵커, 현장에서 진행하다 _ 호준석

22 ZOOM IN

- ① 인턴사원 실습기 _ 박지영
- ② YTN 견학기 _ 윤보라

26 콘텐츠확대

- ① 시청자에게 '말씀'을 전하는 <헬로 웨더> _ 김하나
- ② 전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 퀴즈 대결 <사이언스 퀴즈쇼 15> _ 황중석
- ③ 감각 있는 한 권의 라이프 매거진! <황금 나침반> _ 이근희
- ④ YTN FM 프로그램 - 이슈 & 피플 _ 김혜민
- ⑤ 디지털YTN - 체험학습의 대표 브랜드를 만든다 _ 권영도

35 포토뉴스/게시판



<표지사진>
YTN, 세계를 품다!
디자인 범희철

YTN을 통해 세상을 본다!

아직도 지구촌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 2달러 미만의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다. 세계의 지도자들과 석학들은 더 많은 원조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면서 원조의 규모와 질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의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도 조직개편 등을 통해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정부기관이 그러하듯,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업수행이 쉽지 않다. 우리나라 국민이 명실공히 선진국 국민으로서 세계의 아픔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난 7,80년대 언론이 '잘 살아보세'를 외치며 계몽운동에 앞장서서 우리나라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세계시민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할 때이다.

BBC와 CNN으로 대표되는 서구의 뉴스전문 언론들은 자국의 시각을 통해 세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우리도 당당한 선진국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우리의 방식으로 지구촌 이웃과 친구가 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한국 최초의 뉴스전문 채널이자 글로벌 뉴스 채널인 YTN에 거는 기대가 크다.

나라 안으로는 국민에게 지구촌의 어려운 사정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세계 속의 우리의 위상과 역할을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우리 정부의 대외원조 정책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려 국가 예산으로 집행되는 대외원조사업이 더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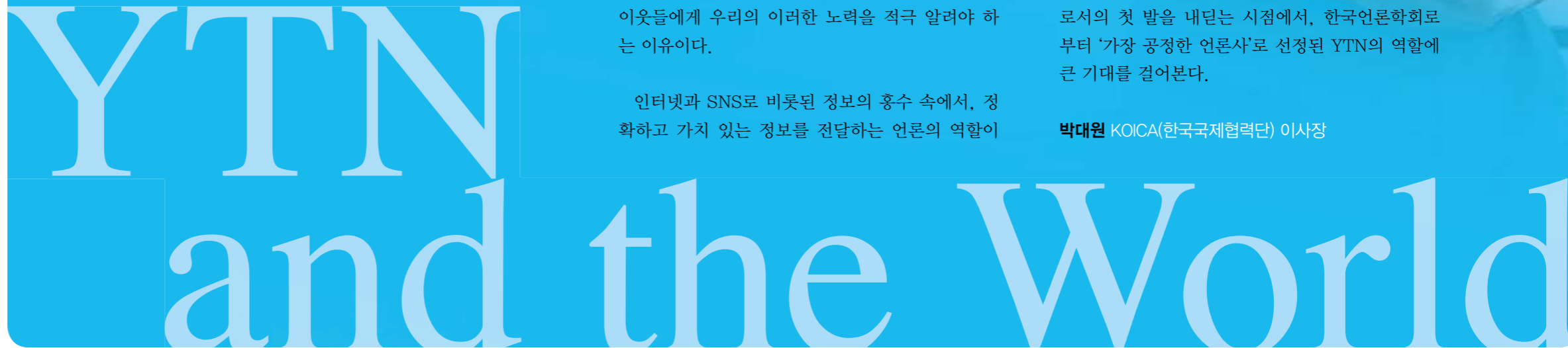
나라 밖으로는 지구촌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국가개발 성공 노하우를 알리고,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해야 한다. 한국은 더 이상 동아시아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GDP 순위가 전 세계 10위권이라는 식의 기존의 경제 중심적이고 물질적인 시각보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소프트외교' 혹은 '공공외교'적인 관점에서도 우리나라의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K-POP의 열풍이 불고,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늘어가고 있다. 세계인의 마음속에 한국의 이미지를 '책임감 있고 매력적이며 배우고 싶은 나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사업 뿐만 아니라 대외원조사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주요 언론이 지구촌 이웃들에게 우리의 이러한 노력을 적극 알려야 하는 이유이다.

인터넷과 SNS로 비롯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확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 공여국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시점에서, 한국언론학회로부터 '가장 공정한 언론사'로 선정된 YTN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어본다.

박대원 KOICA(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세계, 네트워크로 통하다

YTN



LONDON

BEIJING

TOKYO

LOSANGELES

WASHINGTON

NEW YORK

YTN에서는 현재 전 세계 6개 지국의 특파원과 순회특파원, 그리고 36개국 49개 지역에서 총 63명의 월드리포터들이 활약하고 있다. YTN 시청자들은 24시간 실시간으로 변하는 지구촌 곳곳의 생생한 소식을 한 발 빠르게 접할 수 있다.

‘은둔의 나라 라오스’ YTN으로 매스컴 타다!

“김미진 씨, 축하해요!”

평소 왕래가 잦았던 어느 분에게 어느 날 아침 느닷없이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잠이 깼다. YTN 해외리porter가 된 후 ‘글로벌 코리아’ 첫 방송이 나간 것이다. ‘라오스’라는 나라가 전 세계로 송출되는 한국 방송인 YTN의 전파를 탔다는 자체만으로도 동포들 사이에서 한동안 화제가 되었다. 이후 몇 가지 아이템이 연달아 방송을 타는 바람에 거의 매주 라오스 현지 소식을 YTN을 통해 알릴 수 있었다. 한 동포는 “한국에 머물 때 방송을 봤지 뭐야. TV에 라오스가 나오고 더구나 아는 사람 얼굴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 라오스가 어디냐고 핀잔을 주던 지인들 앞에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더라”며 더 많은 활동을 하라고 격려하는 분도 있었다.

라오스에서 YTN은 동포들에게 그리운 한국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해주는 고맙고 반가운 유일한 한국어 방송이다. 특히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언제나 YTN과 함께 아침을 시작한다. 또 자녀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 일부러 YTN을 시청하는 사람도 많다. 라오스에서 YTN은 소중한 모국어 방송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에서 라오스 관련 책자들이 몇 권 출간되면서 라오스에 대한 관심이 부쩍 많이 생겨났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라오스? 대체 어디야?”라고 묻는 사람이 많다. 라오스는 여전히 ‘은둔의 나라’, ‘오지의 땅’이라 불린다. 고등학교 지리 시간에나 들어보직한 라오스와 내가 인연을 맺기 시작한 건 2003년

상해에서였다. 중국어 어학연수 중 몇 개국 유학생들이 모여 모국 음식을 준비해 함께 식사하는 작은 모임에 초대받았는데 그 모임의 주체가 라오스 유학생들이었다. 내가 준비한 음식은 ‘잡채’와 ‘스파게티’. 가난한 국비 유학생들이 가장 먹고 싶은 요리가 ‘스파게티’라고 그 모임을 소개한 한국 유학생이 귀뜸을 해주어서 그들에게 작은 기쁨을 선물하고픈 마음에 ‘스파게티’를 준비한 것이다. 그 때 라오스 유학생 중 한명이 잡채를 보더니 대뜸 “어라, 한국 음식은 모두 빨강고 매운 줄 알았는데 이런 음식도 있네?”라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 요리는 우리 궁중에서 먹던 귀한 음식”이라며 자랑을 했더니 호기심어린 젓가락이 오가고 난 후, 잡채는 모임의 단골메뉴가 되었다. 공동 주방에서는 아예 잡채 만드는 법을 배우려는 라오스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재빨리 나 빠르게 볶기 등 현란한 손놀림을 묘기(?)처럼 보여주고 박수를 받곤 했다. 또 김밥을 사들고 내게 찾아와 김밥 마는 법을 가르쳐 달라는 라오스 여학생도 있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들과 만나 1년여의 시간을 함께하면서 서로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난 서서히 라오스에 대해 알아갔다.

그렇게 정이 들었던 친구들이 하나둘 본국으로 돌아간 후 상해에서 홍콩으로 옮겨가게 된 나는 라오스 방문 계획을 세웠다. 상해에 남아있던 라오스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드디어

2004년 8월 중순 라오스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국비 유학생들이 귀국하는 코스대로 상해에서 쿤밍까지 43시간 기차를 타고, 쿤밍에 있는 라오스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고, 비엔티안행 비행기를 탔다. “눈 밑이 갑자기 푸르러지면 고향에 다 왔다”고 여긴다는 라오스 친구들의 말처럼, 어느 순간 눈 아래에 질푸른 숲들이 무리지어 나타나고 그 사이를 황토 빛 강이 구불거리며 지나고 있었다.

라오스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리자 맑고 청명한 하늘, 달콤하고 신선한 공기, 어릴 적 고향인 시골 읍내 같은 익숙함이 느껴지며 마음이 푸근해지던 그 때, 눈에 들어온 건 길게 늘어선 오토바이였다. 라오스 친구들이 나를 맞으러 나온 것이다. “가자, 라오스 음식 먹으러!”가 내 첫마디였다. 결혼식이나 잔치 때 빠지지 않는 우리나라 잔치국수 같은 음식인 ‘카오뽀 남뽀’는 여전히 내가 가장 좋아하는 라오스 음식이다.

홍콩에서 일하는 동안 한국도 상해도 아닌 단 한번 다녀간 라오스에 향수병에 걸려 결국 2005년 4월 다시 이곳에 돌아와 한 달 동안 머물렀고 그것이 1년이 되고, 이제 어느덧 6년차를 넘어서 버렸다.

솔직히 라오스는 화려한 볼거리는 별로 없다. 그렇다고 바쁘게 돌아다닐 곳도 없다. 왜 이곳에 머무느냐고 묻는다면 그저 “사람과 자연, 있는 그대로가 좋아”라며 배시시 웃을 수밖에. 우리나라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급속도로 잃어버린 것들, 그 무언가가 아직 라오스에는 남아있다. 시골 출신인 내게는 그런 것들에 대한 아련한 향수가 있었나보다. 마음 속 고향으로의 회귀랄까? 어쨌든 라오스는 내게 ‘제 2의 고향’이 되었다.

하지만 요즘 라오스는 숨 가쁘게 달려 나가고 있다. 신호등도

없었던 사거리는 출퇴근길 정체가 시작되었고, 철 지난 해수욕장의 모래사장처럼 한가롭던 메콩강가는 한강 둔치처럼 변해가고 있다. 그래도 전 세계 여행객들은 이곳으로 모여든다. 아직도 곳곳에 숨겨진 라오스에서의 숨은 보물찾기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또한 이 보물찾기에 나만의 방법으로 동참했다. 동남아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로 손꼽히는 라오스는 아직 자국의 역사나 문화 등 여러 가지 소중한 유무형의 자산들을 스스로 지켜내기에 역부족이다. 앞으로 이곳에서 이곳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로 마음먹은 내게 작은 바람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라오스의 어제와 오늘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막 기지개를 켜는 나라이다 보니 잘못된 정보들이 라오스의 참 모습을 양 여기저기 흘러 다니는 것이 안타까워 그것들을 바로 잡고자 작은 힘을 보태는 것. 내가 ‘위클리 라오’라는 조그만 강행물을 만들고 있는 이유다.

오늘도 나는 취재거리를 찾기 위해 안테나를 곧추세운다. 지루할 만큼 너무나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느릿느릿 흘러가는 라오스에서, 때로는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에 빠지곤 하는 이곳 라오스에서 말이다.

김미진 YTN월드
라오스 리porter



세계를 향한 통로, 신호분배실

신호분배실, SDR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외부로 나가는 신호들의 통로이다. 여기서 근무하는 우리는 수문장인 셈이다. 그래서인지 개국 이후 항상 열려있는 여기를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하고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잘 모르는 듯하다.

개국 초기, 모든 신호들은 우리의 감시 하에 이곳을 넘나들었으나 지금은 인터넷과 이동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간혹 감시를 벗어나 들어오기도 한다. 하지만 외부로 나가는 모든 신호들은 우리들의 철저한 감시 하에 목적지까지 도착한다.

신호분배실의 주된 임무는 YTN 식구들이 맘 흘러 만든 프로그램을 국내의 시청자에게 송출하는 업무다. 또 실시간 중계를 위한 Microwave 장비 운용, 국내 지국들과의 망 관리, 지방에서 이슈발생시 광 청약과 운용, 각종 신호를 방송에 적합하게 변환, 광 신호를 이용한 타사 POOL 송수신 등이 있다.

업무의 경계선 상으로는 각 해당 방송사업자(지역SO, 스카이라이프, IPTV, 위성사업자 등)에게 YTN의 프로그램만 잘 전달하는 것이지만 시청자가 YTN의 방송시청의 불편함을 느끼면 그 또한 해결해야 하는 도의적인 업무까지 있다.

YTN 위상이 높아진 만큼 해외업무도 증가

YTN은 초기부터 위성을 통한 전 세계방송을 시작하여 세계화를 시작하였지만 분배실의 해외업무 중요도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YTN의 위상이 높아지고 방송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국내 소식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실시간으로 해외의 소식들이 필요함에 따라 분배실의 해외 업무도 역시 증가했다.

위성을 통한 해외방송은 운세통신을 통하여 전 세계 위성으로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그래서 위성안테나와 수신기만 가진다면 어디서든 YTN의 방송을 접할 수 있다. 실제로 동남아 여행 중 리조트에서 YTN을 봤을 때의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국내 역시 위성으로 무료 수신이 가능하다. 시청자가 직접 위성으로 수신하는 방법을 문의해온 경우도

여러번 있다. 또 하나 해외서 YTN을 실시간으로 보는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서다. 이 역시 Digital YTN에서 분배실로부터 받은 프로그램을 웹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해외로 송출을 할 때는 수많은 물리적 프로세스를 거치므로 그만큼 제약도 많이 따른다. 위성을 사용함으로써 날씨도 영향을 줄뿐더러 위성이 지구와 태양사이에 있을 때 생기는 태양간섭 역시 정기적으로 송출을 방해하는 요인들이다. 이럴 때 가끔 해외방송사에서 직접 전화가 오는데 어설픈 영어실력으로 최대한 성실하게 설명을 해 준다. 손에 땀나는 순간이기도 하다.

인터넷망을 이용한 방송수신은 편리하지만

해외방송 송출 외에 직접 위성청약을 해서 신호를 송수신할 때도 있다. 국내 VIP가 해외 순방을 할 때 현지 상황에 따라 위성청약을 해서 신호를 수신하기도 하는데 통신 기술의 발전과 비용문제를 이유로 웹 수신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해외 송신의 경우는 YTN의 수익과 직결되는데 일본 TBS, 독일 ARD 등 해외 방송사에서 직접 와서 현지 방송국으로 송출을 요구하기도 한다. 해외로의 송출은 신호의 방식 변환, 분배실 장비 보유 여부에 따라 가부가 결정되기도 하지만, 관계사와의 돈독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 최대한 송출하려고 노력한다. 보통 국내 코디가 있지만 현지 직원이 오는 만큼 조금은 긴장한다.

또 해외의 이슈가 발생할 때 외신사의 방송을 수신한다. 외신사의 신호들은 국제부에서 계약된 방송사의 그림을 수신하는데 간혹 계약이 되지 않은 그림을 사용하여 문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방송에 사용하기 전에 충분히 계약여부를 타진하여 방송에 사용하도록 한다. YTN의 특파원을 실시간으

로 연결하기도 하는데 IP LIVE CAST를 이용한다. 현지 특파원이 직접 웹캠으로 연결을 하면 속도에 따라 HD급 영상, 음향이 수신된다. 퍼블릭 인터넷 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데이터양이 증가하는 시간에는 방송이 불가하기도 하다. 인터넷이라는 것이 사용하기는 정말 편리하지만 서비스 품질 보장이 안되어 HD방송에 안정적으로 쓰기에는 아직은 조금 부족한 듯하다.

대략적으로 신호분배실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해외 위주로 나열했다. 글로 서술하기에는 분배실에서 다루는 분야가 다양해 부족함이 조금 있지만 글을 적으면서 YTN의 세계화에 분배

실 근무가 일조한다고 생각하니 어깨가 더 무거워진다. 업무의 대부분이 하드웨어적인 업무라 재미없고 지루한 듯하지만 실제로 근무를 해보면 매일 다른 업무에, 예상치 못한 일들까지 스펙터클한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 이곳이다. 그래서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신호분배실 근무가 좋다.



최영훈 송출기술부



750만 재외동포를 하나로 '글로벌 코리아'

YTN이 만드는 수많은 프로그램 가운데 귀하지 않은 프로그램이 어디 있겠느냐는 우리 스스로가 그 가치를 모르고 지나치는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YTN WORLD의 대표 프로그램이자 YTN의 대표 장수 프로그램인 '글로벌 코리아'이다.

2004년 3월 18일 <재외동포뉴스>라는 이름으로 탄생한 글로벌 코리아는 7년이 넘는 세월동안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며 국내 유일의 동포 관련 뉴스 프로그램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동포의, 동포에 의한, 동포를 위한 '글로벌 코리아'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자산이라는 말이 허공에서만 맴돌던 시절, 자체 해외 송출을 시작한 YTN은 전 세계 곳곳에 퍼져 살아가고 있는 동포들에게 제일 먼저 관심을 가졌다. 재외동포들의 생활상과 동포 사회의 따끈따끈한 이슈를 현지 동포들이 직접 전달하는 뉴스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로 만든 것이다.

프로그램 탄생 1년 만에 주 1회 방송에서 2회로 늘어나고,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고 생생하게 소식을 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급속도로 발전한 인터넷이 한몫을 했다. 지금도 전 세계 36개국에서 살고 있는 60여 명의 해외 리포터들은 그들이 직접 촬영하고 녹음한 영상과 오디오를 인터넷 웹하드를 통해 YTN으로 보내오고 있다. 최근에는 해외문화홍보원, 산업인력공단, KOICA, KOTRA 등이 해외에 파견한 전문가 160여 명을 명예 리포터로 임명해 방송의 영역을 더 넓혀나가고 있다.

취재 대상도 확장해 조선족과 고려인뿐 아니라 재일조선인, 입양인, 다문화 가정의 이야기도 글로벌 코리아의 소식으로 다루고 있다.

세상과 소통하는 '글로벌 코리아'

주 2회 제작, 회당 20분. 글로벌 코리아의 시간은 짧지만, 우리가 전하는 세상 이야기의 여운은 결코 짧지 않다. 일제 강점기 강제 노역으로 일본에 끌려갔다 하루 아침에 정착한 터전을 잃게 된 재일조선인 마을 '우토로' 주민들의 눈물겨운 투쟁 이야기, 독도의 주인을 알리겠다며 세계 일주에 나선 한국 젊은이들의 당찬 도전 이야기,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며 한국의 이름을 드높이는 동포들의 성공 이야기 등



이 다양한 리포트 형식을 통해 짧지만 강한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다.

최근에는 아이템의 반경을 대폭 넓혀 동포 관련 소식에서 더 나아가 일반 국제 뉴스에서 다루지 못하는 세계 곳곳의 화젯거리나 흥미 있는 정보도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글로벌 리더나 한국을 빛낸 인물, 동포 현안과 관련된 국내외 인사가 등장하는 '글로벌 초대석'은 대표 코너 가운데 하나로 지금까지 400명에 가까운 초대 손님이 다녀갔다.

한식 세계화 바람에 발맞춰 세계 각국에서 한식이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고 또 어떻게 전파되는 지를 보여주는 한식 코너도 매주 시청자들의 구미를 당기고 있다.

최상의 하모니로 만들어진 '글로벌 코리아'

글로벌 코리아는 해외 리포터들과 해외방송팀원들 그리고 YTN 기술팀이 하나가 돼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누구나 알다시피 얼굴을 보지 않고 그저 전화로 이메일로 사람 사이에 대화가 오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 나라마다 시차가 천차만별이라 현지 시간이 아침이 되기까지 기다렸다가 아이템 협의를 하고, 때로는 전송된 동영상에 문제가 있어 밤늦게 혹은 새벽녘에 단잠에 빠져 있을 해외 리포터들을 깨워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인터넷 여건도 나라마다 달라서 동영상을 전송하는 데 하루가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글로벌 코리아가 7년 넘게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열정 덕분이다.

바쁜 생업 가운데서도 좀 더 나은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 열정을 갖고 뛰고 있는 해외 리포터들 그리고 리포터들의 아이টে이 더욱 빛나도록 기사수정에서부터 편집, 인터뷰 번역, 녹화 현장에서는 방송 스태프로까지 최소 1인 3역을 도맡아 하는 해외방송팀원들, 모든 아이টে이 하나로 잘 엮일 수 있도록 항상 심혈을 기울이는 기술팀의 노고가 합쳐져 글로벌 코리아가 만들어지고 있다.

재외동포 750만, 해외여행객 1000만 시대, 한국인이 뿌리를 내리지 않은 곳이 없고, 많은 한국인이 저마다의 목적으로 해외를 오가는 요즘, 글로벌 코리아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YTN만이 가진 유일한 프로그램, 수년간의 노하우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이는 우리 모두가 자부심을 갖고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김여진 <글로벌 코리아> 앵커 해외방송팀

<방송시간> (목) 12:30, 21:30 (토) 10:30, 19:30

고난의 땅에 뿌려진 희망의 씨앗

새까만 흙먼지 속에서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까만 피부에 수정처럼 맑은 눈동자를 가진 천사들. 5박6일 동안의 짧은 여정이 당장 힘든 현실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일지라도 아이들에게 더 나은 내일에 대한 희망과 세상의 온정을 전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마음은 벅차올랐습니다.

캄보디아...

못사는 나라, 더운 날씨, 독재와 킬링필드, 앙코르와트, 영화 '툼 레이더' 촬영지. 아직도 지뢰 제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시장에서는 무기들이 판매되고 있으며 각종 질병과 말라리아를 예방해야만 하는... 이런 절박한 지식으로 그곳에 가기 전부터 조금 겁이 났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6일간의 촬영기간 동안 내게 다가온 느낌은 캄보디아의 미소, 신비로움, 경이로움... 그리고 안타까움이였다.

세계 최 극빈국 중 하나 캄보디아

일인당 국민소득 600달러. 특별한 제조업도, 공장도 없는 농업 중심의 사회!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하나 둘 의문점을 가지게 된다. 기후 좋고, 식물 잘 자라고, 땅도 넓은데 왜 세계 최 극빈국 중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과거 70년대 베트남 전쟁이 벌어지기 전까지 캄보디아는 우리나라 보다 잘 살았다고 한다.

베트남 전쟁의 미국 전초기지로 이용되면서부터 갈등이 시작됐고, 공산주의 잔해 속에 농민천국을 구현한다며 200만 명이 넘는 지식인, 정치인, 외국어를 잘할 줄 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량학살을 실시했다고 한다. 그 당시 너무나 많은 인재들을 학살시켜

현재까지 캄보디아는 글을 아는 국민들이 3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캄보디아 해외봉사단 동행취재

2011년 7월 27일. KT&G 임직원들과 대학생 해외봉사단 30여명이 캄보디아 씨엠립을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들은 해외봉사활동 일환으로 씨엠립의 집단 난민촌과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 위해 5박 6일의 여정 길에 올랐다. 5시간의 비행 끝에 밤 12시가 돼서야 씨엠립 공항에 도착했다. 일단 해외봉사단과 우리 촬영팀은 숙소로 향했고, 다음날 촬영 준비를 해야만 했다.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는 처참한 현실

다음날. 숙소에서 간단히 아침식사를 해결하고 해외봉사단을 따라 향한 곳은 씨엠립 비전센터 다일공동체였다. 그곳은 씨엠립 시내에서 서남쪽으로 30분 정도 달리다 포장된 도로가 거의 끝나는 지점인 프놈크롬산 아래에 위치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급식을 해주는 봉사활동 단체로 알려진 다일공동체는 지난 2004년 이 곳 캄보디아에 문을 열었다고 한다.

굶주림에 지쳐 국경을 넘어 베트남에서 노숙하는 아이들의 참혹한 현실을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어 무료급식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고 한다.

함께 웃고 놀아주는 것이 곧 봉사

"쑤어쓰레이" 캄보디아어로 "안녕하세요"이다. 봉사단원들은 미리 외워 둔 캄보디아어로 현지인 봉사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무료급식과 아이들 머리 감겨주기, 빵 만들기, 배 손질하기 등 일의 양이 너무 많았고, 숨 쉬기조차 힘든 더운

날씨임에도 봉사단원들은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부족한 일손을 채워 나갔다. 우리 촬영팀은 그들이 흘리는 땀방울과 열정을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다.

전쟁이 무섭다는 것을, 가난이 힘겹다는 것을, 찌는 더위가 고통스럽다는 것을, 배고픔이 눈물 난다는 것을 캄보디아에서 보았다. 하지만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 아닐까.

전쟁보다 무서운 것은 무관심

무료급식을 받게 될 대상은 지역 난민촌의 14세 이하 아동들이었다. 이 아이들은 베트남 전쟁과 캄보디아 내전 등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떠밀려온 난민들의 자녀로 톤레삽 호수의 수상가옥에서 살고 있다. 이곳 난민들 대부분은 무국적자들로 물고기를 잡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실정이고 굶주림이 일상인 이곳 아이들에겐 점심 한 끼를 제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건 거의 축복에 가까운 일이었다.

캄보디아 톤레삽 호수는 우리나라 경상남도 면적만하다. 비가 오는 우기에는 그 규모가 세배로 증가하고 비가 오지 않은 건기에는 크기가 1/3로 줄어드는 희한한 호수다. 동양 최대의 민물 호수이지만 주변 생활은 그야말로 열악하기만 하다. 조그만 조각배에 지붕만 씌워 다섯 명에서 열 두명의 가족들이 살고 있지만 화장실, 우물, 씻을 곳은 찾아 볼 수조차 없었다.

이들에겐 톤레삽 호수가 바로 먹는 물이고, 화장실이며 씻는 장소였다. 당연히 영양상태도 좋을 리가 없다. 배만 볼록 나오고, 머리에는 곰팡이 균이 있어 부스럼이 나 있다. 치료할 방법도 병원도 없는 실정이라 안타까움은 더해만 갔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고 조금이나마 어린이들의 허기짐과 영양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밥과 빵과 빵과 봉사를 하고 있지만, 이동의 한계로 이곳을 찾아오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빵을 만들어 직접 배달을 하고 있다. 연신 땀을 흘리면서 손발을 놀리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보다도 더해주고 싶은 것이 봉사단원 모두의 공통된 심정이었을 거다.

그곳에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법을 배우다

우기에 접어들어 캄보디아에는 하루 한때 내리는 비로 인해 생동감이 넘친다. 비가 내릴때 마다 좋아서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밝은 웃음이 아름다울 뿐이다. 내리는 비가 그쳐 좋은 꼬맹이들과 달리 조금 큰 아이들은 톤레삽 호수로 나가 배 노 젓기 보조사 물고기 손질하는 일들을 하기도 한다. 고된 삶의 현장에 아이들이 있지만 어찌나 의젓한지 만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친구들에게 한 끼의 밥을 나눌 때마다 우리는 무릎 꿇고 두 손으로 머리 숙여 겸손한 마음으로 밥을 나눌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에게 우리는 꾸밈없는 미소를 배웠고, 사람간의 따뜻한 정을 배웠다. 여기서 배운 모든 것들을 잊지 않고 간직하고 실천 할 것이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5박 6일간의 일정이 모두 끝나던 날 우리는 소중한 추억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왔다. 비록 몸은 한국에 있지만 종종 캄보디아에서의 시간이 떠오를 것이다. 까만 피부에 유난히 눈이 동그랗고 맑았던 아이들, 오토바이에 친구나 자녀를 태우고 흙먼지를 날리며 어디론가 향하던 아낙네들, 이 모든 것들이 아직도 기억 속에 생생하다. 캄보디아에서의 일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자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로 자리 잡을 것이다.

정재기 PD YTN사이언스 뉴스제작팀



우리는 세계를 꿈꾼다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매우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것이 학업 면에서든, 예술 면에서든, 최고의 자리에서 느끼는 영광은 저 자신과 저를 곁에서 도와준 사람들, 그리고 다른 수많은 도전자의 노력을 한꺼번에 대변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우승의 기쁨을 YTN · HUFs 청소년 영어토론대회에서 느낄 수 있어서 우선 너무도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대회에서의 우승은 저에게는 무척 특별합니다. 작년,

이 대회에서 아쉽게 준우승을 하였기 때문도 있겠지만, 제 고등학교 생활 3년의 영어 토론 커리어를 마무리 짓는 대회이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어토론이라는 것을 처음 정식으로 접한 뒤 간신히 학교 영어토론 동아리에 합격하고, 2학년 때 한국 토종으로는 처음으로 동아리 부장을 맡게 되었는데, 그때 느꼈던 감정은 뿌듯함보다는 격정과 불안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를 모국어처럼 자유롭게 구사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지 막막했었고, 혹시라도 영어토론으로 알려진 학교의 명성에 누가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정말 영어토론이라는 분야를 좋아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꾸준히 동아리에서 연습하고 대회도 참가하면서 경험을 쌓고 배웠습니다. 토론에서 이겼을 때는 제가 어떤 점을 잘했고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체크했고, 토론에서 졌을 때는 어떤 점이 부족해서 졌는지 빠짐없이 확인하여 다음 토론에 반영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저 자신을 계속해서 점검해 오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려 노력한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되어 이 우승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었다고 믿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영어토론을 해오면서 단순히 영어 실력을 키운 것뿐만 아니라 너무 좋은 친구들과 존경하는 선배들을 만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능력도 배운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저보다 일 년 아래의 후배들을 이끌고 출전하였는데,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친해지고 대회를 거치면서 서로를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학년 선배로서 후배들을 이끌고 후배들의 독특한 생각을 팀 전체에 반영시키는 법도 깨달았습니다. 후배들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다듬어 잘 짜인 논리로 만들어 보니 팀 자체가 다양한 논리적 색깔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의 큰 줄기를 잡고, 후배들이 서로 고민하고 토론하며 가치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식으로 토론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니 팀 전체의 논리적 구성이 견고해지고 다양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성을 띤 논리가 빛을 발한 것이 결승 때였던 것 같습니다. 후배가 특던진 말에서 고안하여 주제를 독창적으로 해석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승의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수상기를 통해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영어토론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넘을 수 없는 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좌절했던 순간들이 있었고, 영어가 부족하여 불안감에 휩싸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하지 않아도, 말하는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토론에선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말할지가 아닌, 자신의 주장을 얼마나 논리 정연하게 펼치는지가 대회의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승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영어토론

대회는 수상보다는 배움 그 자체에 의의가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보다 많은 고등학생들이 영어토론을 무서운 경쟁의 장이 아닌, 영어실력을 키우고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생각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 제가 영어토론이라는 것을 처음 접한 이후 우승 소감을 쓰게 된 지금까지 느꼈던 감정들이 하나하나 스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잘 향상이 되지 않던 영어말하기 실력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던 기억, 대회를 이겼을 때의 뿌듯함, 연설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킬 때의 자신감, 억울하게 대회를 졌을 때의 아쉬움, 서러움까지 영어토론으로 인하여 정말 많은 감정들을 느낄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더욱 풍부하고 딱 찬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 이렇게 이 대회로 고등학교의 토론 커리어를 마무리하면서 영어토론이 단순히 영어 실력을 향상시켜주는 것 이외에도 수많은 감동과 깨달음을 준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이번 대회와 이 수상기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소윤 대원외고 3년



왼쪽부터 김지아 최미도 유소윤

새로운 패러다임과 해법 찾기

IT 메가트렌드

1981년 '모든 가정과 책상에 컴퓨터'를 놓겠다던 Microsoft사는 2005년 시가총액 2,630억 달러, 전 세계 3위에 오르며 그 꿈을 달성했다. 당시 Microsoft는 소프트웨어 집중, 표준화된 운영체제, 인터넷시장 장악이란 키워드로 크게 성공을 거두었고, PC 보급률이 늘어날수록 자연스럽게 매출이 올라가는 수익구조를 갖춰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다. 그러나 잘 나가던 Microsoft에도 위기가 찾아왔다.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급기야 2009년, 시가총액이 2004년 대비 38%까지 하락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정성이 그대로 시장에 표출되었다.

이는 Microsoft만의 일이 아니다. 최근 IT산업을 대표하던 기업 Sony, Nokia, Nintendo 등이 차례로 흔들리면서 Microsoft와 같은 행보를 걷고 있다.

시장의 현실은 냉혹하다. 순간의 방심이 한 순간에 1등 기업의 아성을 무너뜨리기도 한다. 그래서 최근 유행어가 바로 '졸면 죽는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기업이 지속적으로 살아남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을 철저히 분석하고, 트렌드를 정확히 읽어내는 능력을 가지는 것일 것이다. 최근 ICT산업의 메가트렌드는 소프트웨어, 오픈 에코시스템, 모바일이며, 2009년 11월 kt가 도입한 아이폰은 바로 이러한 메가트렌드의 산물인 것이다.

소통방식의 새로운 변화

얼마 전 모두를 놀라게 했던 일본 지진사건과 유럽을 휩쓸고 있는 K-POP 열풍.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 눈 깜빡할 사이에 전 세계로 정보가 퍼져나갔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처럼 일본에서 일어난 일을 지구 반대편에서도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 이를 실현시켜 준 도구가 바로 스마트폰이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자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제는 스마트시대라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국내의 경우, 2011년 2,000만 명을 돌파하면서 2012년에는 전 국민의 65%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것이라 예측될 정도로 그 성장속도가 빠르다.

새로운 스마트폰 시대에 들어섬에 따라 TGIF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TGIF란, 트위터(T), 구글(G), 아이폰(I), 페이스북(F) 등 SNS의 대표적인 아이콘들의 첫 자를

따서 만들어졌다. 이러한 SNS는 친구들과의 연락, 인맥 형성의 수단에서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정치, 경제 등 다방면에 활용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트위터 타운홀 미팅을 통해 실시간 국정토론을 펼친 바 있으며, 국내의 경우에도 트위터가 선거의 판도를 가르기까지 하는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SNS 의미와 활용 방안

SNS가 이처럼 각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SNS는 '빨리빨리'와 '공유문화'를 가진 한국인에게 적합한 매체이다. 한국은 일본, 영국과 함께 가장 높은 트위터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있는 국가이다. 실시간성, 빠른 확산, 누구에게나 평등한 소통 문화라는 특징이 한국인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커뮤니케이션은 매스미디어가 단방향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SNS로 인하여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이 변화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해 정부/기업이 소비자에게, 소비자가 정부/기업에게, 소비자가 소비자에게 메시지를 곧바로 전달할 수 있는 '직접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활성화되었다. SNS가 개인 채널화되어 개개인의 영향력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kt의 경우, 고객과 소통하는 데에 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kt의 기업 공식 트위터는 국내 기업 트위터 중 팔로워 수 1위를 달리고 있으며 50명의 인력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또한 폐쇄형 SNS 'Yammer'를 통해 임직원간 실시간 소통 및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직급에 따른 소통방식의 문제인 '소통의 왜곡 및 누락, 지연'이 'Yammer'를 통해 개선되었다. 임원이 직접 트위터를 통해 오피니언 리더로서 활동하기도 한다. kt는 SNS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리스크에 대응한다. SNS 담당부서가 트위터, 온라인 미디어 및 커뮤니티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리스크가 탐지되면 'Yammer'를 통해 관련 그룹과 실시간으로 토론했다. 대응 방안을 도출한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즉각 이슈에 대응함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일본 대지진 발생 때에 고객 불만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 비난 여론을 진화한 사례가 있다.

스마트 시대의 방송미디어

IT 메가트렌드는 TV의 변화까지 초래했다. 인터넷 기반 서비스가 가능한 TV, 즉 커넥티드 TV가 바로 그 예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스마트TV를, 소니와 로지텍, 하이얼 등은 안드로이드 TV를 출시하였다. 커넥티드 TV의 출현은 특히 Pad류가 모바일TV로 발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010년도에는 약 2천만대 정도의 보급률을 보이다가 꾸준한 성장세로 2014년도에는 약 2억대를 예상하고 있을 만큼 태블릿 PC 시장은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아이폰 사용의 21%, 아이패드 사용의 25%가 동영상 시청인 만큼 모바일 동영상 소비에 대한 요구가 크다. 기존 3G보다 3~5배 빠른 4G 네트워크의 등장으로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kt는 WiBro 4G를 금년 3월 전국 82개 모든 시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여 금년 11월에는 LTE(Long Term Evolution ; 차세대 이동통신 규격)까지 상용화할 예정이다. 결국 이러한 네트워크의 진화와 함께 방송 콘텐츠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초고속 인터넷, 4G, WiFi 등이 방송 콘텐츠와 결합하여 고객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로 소비자들의 방송 콘텐츠 소비 패러다임이 'TV와 인터넷의 동시 소비 시대'로 바뀌고 있다. 예를 들면 조만간에 사람들은 뉴스를 보면서 SNS를 통해 뉴스에 대해 실시간으로 토론하는 그런 시대가 분명 펼쳐질 것이다 (아니 그런 현상은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스마트 시대는 콘텐츠 대량 소비의 시대라 말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됨에 따라 SNS가 활성화되었고 스마트 패드는 언제 어디서나 방송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TV Anywhere'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스마트 TV의 활성화는 TV와 인터넷을 동시에 소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어느 방송사가 소비자가 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내고 해법을 만들어 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표현명 이사장

New wave SNS

상암동 YTN미디어센터 지하 연속벽 철근망 설치

YTN은 8월5일 상암동 YTN미디어센터 부지에서 '지하연속벽 철근망 설치 행사'를 가졌다. 지하연속벽은 지하층 외벽 구조체로서 땅을 파기 전에 흙막이 역할을 하는 외벽이다. 또 본 공사에서도 철거하지 않고 외벽으로 사용된다.

지하연속벽은 8월말 완성됐고 전체 공정률의 4.11%를 차지한다. 앞으로 지하기둥설치, 지하터파기, 골조공사 등을 2012년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최종 완공 예정일인 2013년 9월까지 각종 마감공사와 인테리어 공사, 시운전과 인수인계가 예정돼 있다.

신사옥건립추진팀은 주요 공사의 진행상황을 영상물로 제작해 YTN의 역사 기록물로 남기고, 분기별로 공사의 진행 상황을 공지할 예정이다. 또 YTN의 미래비전이 담긴 YTN미디어센터 공사가 한 치의 오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하연속벽 / 지하기둥 설치

- ▶ **지하연속벽**
 지하층 외벽구조체로 땅을 파기 전에 설치하는 지하옹벽
 (8월 5일 ~ 8월말)
 공정률 4%
- ▶ **지하기둥설치**
 기둥 부위에 땅을 파고 지하층의 철골기둥을 설치
 (9월초 ~ 10월말)
 공정률 6%

지하터파기 공사

- ▶ **지하터파기**
 지하6층까지 터파기
 (11월초 ~ 2012. 5월)
 공정률 18%

골조공사

- ▶ **지하골조**
 지하터파기와 같이 작업
 (12월 ~ 2012. 6월)
 공정률 22%
- ▶ **지상골조**
 지하 2층 골조 완료 후 지상과 지하의 골조 공사를 동시에 시행
 (2012. 5월 ~ 11월)
 공정률 46%

각종 마감공사 / 인테리어 공사

- ▶ **커튼월공사**
 YTN미디어센터의 유리벽체 공사
 (2012. 8월 ~ 2013. 6월)
 공정률 92%
- ▶ **내부 마감공사**
 미장공사, 페인트 공사
 (2012. 8월 ~ 2013. 8월)
 공정률 99%
- ▶ **내부 마감공사**
 로비, 각종 복도 등의 인테리어공사
 (2012. 8월 ~ 2013. 8월)
 공정률 99%

전체 시운전 / 인수인계

- ▶ **전체 시운전 및 인수인계**
 건물에 설치된 각종 장비의 종합 시운전, 인수인계
 (2013. 8월 ~ 9월)
 공정률 100%

| 영상편집부 새얼굴 |
**열심히 배우며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한송이
 87. 1. 14
 동서대 멀티미디어디자인과
 모르는 것 투성이지만 열심히 배우서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윤
 81. 2. 28
 호서대 정보통신공학
 오디오맨에서 스포츠부 AD 그리고 영상편집부까지... YTN에 뻘을 묻겠습니다.



김민정
 86. 4. 3
 용인송담대 방송영상학부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며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서영미
 87. 9. 16
 한남대 멀티미디어영상
 선배님들의 가르침, 양쪽 귀로 듣고 흘려보내지 않겠습니다.

“김 선배, 중계차 안 된대요”

국제스포츠대회에서 비중계권 방송사의 활동폭은 넓지 않다. 모든 게 통제다. 이번 대회도 모든 건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이 통제하고, 대구 대회조직위는 마치 대행사처럼 그 통제에 따른다. 가장 큰 문제는 중계 스튜디오 위치의 확정이었다. 출장 이틀 전 사전 답사차 대구에 내려간 정호윤 중계 PD로부터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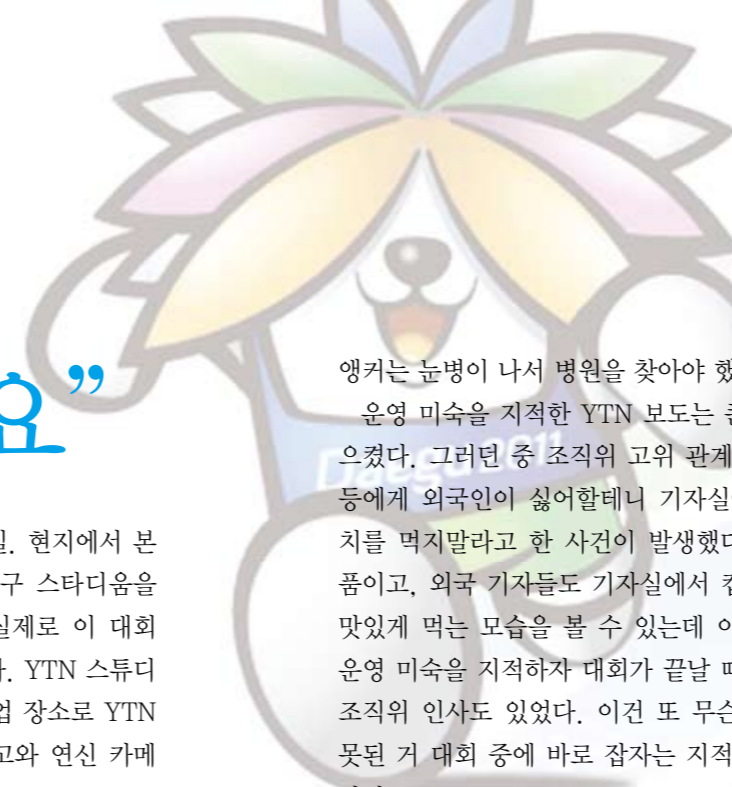
“김상의 선배, 큰일 났어요. 여기 중계차 안 된대요” 머릿속에 그렸던 특별스튜디오 설치 예정 장소가 ‘통제 구역’이라는 얘기가. 쉽지 않을 거라 예상은 했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게 불안했다. 만약 그 자리가 아니면 12일 동안 계속될 중계의 품질이 떨어질 건 뻔하기 때문이다. 곧바로 조직위 관계자, 뉴스피드권 판매사 등 당치는 대로 10여 통의 전화를 돌렸다. 역시 답이 없었다. 그렇다고 대구지국 실내 스튜디오를 사용할 수는 없는 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풀까?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대회 조직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 절박한 상황에 빠진 취재기자의 통화는 ‘읍소’와 ‘협박’의 경계를 넘나들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20분 뒤... 현장에서 해결됐다는 전갈이 왔다. 일단 한숨 돌렸다. 장기 출장 가기 전 나의 달콤한 가족과의 하루 연차 휴가는 이렇게 끝나가고 있었다.

대구에 도착한 건 대회 개막 2일 전인 25일. 현지에서 본 스튜디오는 기대 이상이었다. 특히 뒤로 대구 스타디움을 그림같이 펼쳐놓은 배경은 환상적이었다. 실제로 이 대회 주관방송사 KBS의 스튜디오 위치보다 좋았다. YTN 스튜디오 오는 명소가 됐다. 각 국의 기자들은 스탠드업 장소로 YTN 스튜디오를 빌려줬고 시민들은 사진기를 들고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하지만 역시 취재여건은 녹록치 않았다. 20명이 넘는 취재인력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AD카드는 6장, 차량비표는 달랑 한 장, 모두 돈의 논리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지 그랬냐는 소리는 이 세계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대회기간 동안 우리 특별취재반에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는 지면관계상 사원들 상상에 맡기겠다.

호준석 차장과의 방송은 나중에 알았지만 회사에서 ‘만담조’로 불렸나보다. 재미를 생각하다 보니 시각에 따라 마음에 들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시청자의 눈을 잡기 위한 현장의 노력으로 이해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다. 중계횟수 총 32번, 체력전이었다. 호차장은 목이 아파 매일 병원을 다녔고, 나중 절반을 함께 방송한 김선영



앵커는 눈병이 나서 병원을 찾아야 했다.

운영 미숙을 지적한 YTN 보도는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던 중 조직위 고위 관계자가 박진수 기자 등에게 외국인이 싫어할테니 기자실에서 컵라면과 김치를 먹지말라고 한 사건이 발생했다. 김치가 세계상품이고, 외국 기자들도 기자실에서 컵라면과 막걸리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운영 미숙을 지적하자 대회가 끝날 때까지만 봐달라는 조직위 인사도 있었다. 이건 또 무슨 무개념인가? 잘못된 거 대회 중에 바로 잡자는 지적인데 대회 끝나고라니....

결승전이 저녁에 집중돼 있다보니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하는 카메라기자 두 명의 고충은 말로 표현이 안 된다. 이런 와중에도 YTN은 100m에서 실격당한 볼트가 한밤 보조구장에서 보여준 분노의 질주를 특종 보도하고, 볼트가 신발을 관중석에 던지는 장면을 단독 촬영하는 개가를 올렸다. 뉴스에 대한 집중과 의지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생각한다. 기사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었던 타사 기자들은 YTN 덕분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추가 기사를 송고해야 했고, 현장에서는 ‘역시 YTN’이라는 기분 좋은 칭찬을 들을 수 있었다.

든든한 응원군 채장수 지국장을 비롯해 AD카드가 있다는 죄로 하루 24시간이 부족했던 임종률 기자, 볼트 분노의 질주를 단독으로 잡아낸 이동형 차장, 볼트 신발의 비상궤적을 단독 추적한 박진수 차장, 지원 사격해 준 박기현 김종호 박종혁 장아영 허성준 기자, 박태근 차장 이철근 차장 지대웅 차장 전재영 차장, 세팅과 철수를 반복한 중계팀의 이광희 차장 오민철 차장 박경태 차장, 이대환, 한두근 씨, 정호윤 PD. 그 밖에 이렇게 힘든 출장 처음이라면서도 묵묵히 일해준 오디 오맨과 기사분들... 모두 충심으로 감사합니다.

완벽한 팀워크가 만들어낸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취재와 중계. YTN이 아직 충분히 젊은 조직이라는 희망을 갖게 한 뜨거운 늦여름이었다.

김상의 차장 스포츠부

앵커, 현장에서 진행하다

잘했어! 뭘 잘 했어?

멀게만 느껴지던 대구는 KTX로 1시간 반 남짓 걸렸다. 2003년 초 지하철 참사 취재 이후 8년 만이었다. 거리는 축제 분위기였다. 정작 시민은 그때 일을 잊었지만 8년 만에 간 기자는 그런 분위기가 반갑고 고마웠다.

YTN 특별 스튜디오는 대구 스타디움에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산 중턱 산책로에 있었다. 최고의 입지였다. 게다가 입사 17년 만에 처음 보는 번듯한 야외 스튜디오였다. 구경하러 들른 대구지국 전기호 촬영기사는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아시아(비계)를 보다니 감격”이라고 했다. 많은 외국 취재팀이 와서 촬영하고 시민도 구경하며 지나갔다. 어느 대학교수 부부는 “개국 때부터 YTN 열성팬인데 여기서 방송하는 걸 보고 일부러 찾아왔다.”며 반가워했다.

방송은 하루 세 번씩 계속됐다. 김상의 기자와 함께 전날 경기를 분석하고 당일 경기를 예측했다. 방송이 끝나면 서로 박수를 치고 국회의원들처럼 ‘잘했어’를 외쳤지만 나중에 스마트 폰으로 모니터를 해 보면 늘 모자랐다. 시청자들이 보고 싶어 하는 그림을 충분히 보여줬는가, 단 1초라도 지루하지는 않은가, 그림과 말이 따로 놓고 있지는 않은가, 표정과 시선 같은 TV적 기교들이 자연스러운가... 아직도 나는 멀었구나 싶었다.

밖에 나가보면 ‘그래도 YTN 사람들 참 열심히 일한다.’ 라는 생각이 든다. 과거보다는 여건이 훨씬 좋아졌다. 그래도 바로 옆에 스튜디오를 차렸던 거대 방송사와 비교하면 대형마트와 동네마트다. 그 차이를 채워나가는 것은 YTN 사람들의 성실하고 정직한 노력이었다. 중계팀, 취재기자, 촬영기자, 지원 나온 지국 취재팀, 참 열심히들 일했다. 심야에 경기가 끝나고 다음날 오전 방송이 있어 밤에도 다들 바쁘다. 그런데도 부득불 “그래도 밥 한 끼 같이 먹어야지 그냥 가면 되느냐”고 불러 모아준 채장수 대구 지국장. 따뜻한 정이 고마웠다.

대구에 다녀오니 사람들이 묻는다. “우사인 볼트 봤나?”. 못 봤다. 취재 비표가 없어서 경기장에도 못 들어가 봤다. 다행히 모델 TV가 대형 HD TV였다. 육상이 이렇게 흥미진진한 줄 이제야 알았다. 가장 정직하고 원초적인 스포츠, HD 화면에 생생하게 잡히는 선수들의 힘줄과 근육 섬유는 오랜 세월 뼈를 깎는 노력의 결과였을 것이다. 레이스 중 넘어진 금메달리스트 키플라가티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준 여자 마라톤 동메달리스트 세론 체로프(케냐), 철치부심 노려온 재기의 금메달을 놓쳤으면서도 “내 친구 로블레스가 일부러 방해하지 않았을 것이다. 모두들 행복했으면 그걸로 됐다.”고 말한 110m 허들의 류생(중국), 인생의 스승들이다.

6일 만에 김선영 앵커가 임무 교대하러 와줘서 서울로 돌아왔다. 기본 곳은 숙소와 스튜디오 뿐인데 정든 도시를 떠나는 기분이었다. 대회가 잘 치러지길, 대구 사람들 모두 평안하길 기도하면서 밤길을 달렸다. 첫날 아빠 없어졌다고 울었던 일곱 살 짜리 딸이 엄마와 함께 역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호준석 차장 (YTN 투나잇) 앵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진수, 전재영, 허성준, 임종률, 이광희, 장아영, 박태근, 정호윤, 강성호, 박경태, 이대환, 오민철, 김선영, 김상의, 이동형

소중한 디딤돌이 된 인턴생활

YTN 인턴 박지영'... 지난 여름방학 동안 저의 또 다른 이름이었던 말입니다. 남다를 것 없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저는, 운 좋게도!! 현장에서 바로 뛰고 있는 선배 기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인턴 실습을 하는 동안 몇 번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YTN에서 인턴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언론사 입사를 원한다면 스펙을 높이거나 언론고시 공부를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고도 덧붙이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턴 경험 여부가 언론사 합격을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작문해 보고 상식 시험을 준비하는 게 합격을 위해서는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하지만 인턴 활동은 우려처럼 시간 낭비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되어줬습니다. '꿈'을 '현실'로 바꿀 수 있게끔 도와준 소중한 시간이었던 셈입니다. 먼저, 전공을 통해 배운 여러 가지 것들을 현장에서 적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전공 커리큘럼이나 수업 시간에 미처 배우지 못한

것들을 실제로 체험할 수도 있었고요. 예컨대 생방송 뉴스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앵커와 PD를 비롯해 여러 스태프는 1분 1초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방송이 협업을 통해 완성되는 것임을 비로소 실감했지요. 방송을 기획하고 편성해서, 이를 제작하고 편집하여 송출하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노고가 깃들여 있더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분들도 참 많았어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 부서를 돌며 현장에도 직접 나가보고, 직접 기사를 쓴 뒤 리포트를 녹음해 보기도 하고, 조명과 카메라 위치를 점검하기 위해 인터뷰이 대신 카메라 앞에 서기도 했습니다. 또 YTN과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주최했던 청소년 영어토론대회 스태프로 참여함으로써 언론사에서 하고 있는 문화 사업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평소 관심이 있던 스포츠 선수와 좋아하는 연예인도 만나보기도 했어요.

언론사에서 어떤 인재를 요구하는지, 또 나는 그에

얼마나 걸맞은 도전자인지 되돌아 볼 수도 있었습니다. 더불어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해 볼 수도 있었고요. 기자, PD 등 방송 현장에서 일하는 선배님들께서 진로에 대한 조언 뿐 아니라, 앞으로의 삶이나 인생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진심어린 이야기를 해 주셨던 겁니다. 뒤늦게 이 자리에서나마 저희들을 위해 바쁜 시간을 쪼개 신경 쓰고 배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듯 YTN에서 함께할 수 있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울 수 있어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취업준비생에게는 가장 큰 행운이자 행복했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인턴 실습을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지영 경원대 신문방송학과 4년

왼쪽부터 김연철, 정재훈, 금창호, 남정민, 최서희, 박지영



그 동안 감사했습니다. 인턴사원 종료식을 끝내고... 왼쪽부터 정재훈, 박지영, 김연철, 최서희, 남정민, 김백 상무, 금창호, 류희림 경영기획실장, 인사팀 정철민



기대 이상의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웠습니다.

靑春, YTN을 가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서부터 살갍에 닿는 공기가 서늘했다. 단순히 방방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다. 웬지 모르게 괜히 긴장되고 경직됐다. 다른 방송사를 갔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였다. 이진 뭐랄까...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문 채널' 방송사의 포스랄까. 게다가 24시간 실시간으로 뉴스를 방송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 긴장되고, 설레고,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대회의실에서 YTN에 관한 간단한 소개 영상을 본 후 본격적인 견학이 시작되었다.

처음으로 간 곳은 10분 뒤면 바로 생방송이 진행될 뉴스 스튜디오였다. 실제 방송이 이루어지는 스튜디오 안을 직접 들어가 본 건 처음이었다.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우리 모두 '우와~', '하야~' 감탄사를 연발했다. 장비에 관심이 많은 남학생들은 촬영카메라 앞에 붙어 서서 '이게 과연 얼마짜릴까?' 심각하게 의논했다. TV를 통해서만 보았던 스튜디오 안에 있으니 마치 TV속으로 들어온 듯 모든 게 다 신기했다. 앵커

석에도 살짝 앉아보았는데 심히 어색하고, 긴장되고, 떨렸다. 나도 모르게 데스크에 놓여있던 펜을 쥐었다. 손에 뭐라도 쥐고 있어야 할 것 같았다. 펜 하나 쥐었을 뿐인데 심신에 안정이 찾아왔다. 아, 이래서 앵커들이 항상 펜을 들고 있나? 스튜디오 안은 생각보다 카메라도 많고 모니터도 많아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이때 생방송을 하기 위해 '뉴스&이슈'의 앵커, 정찬배 앵커와 이광연 앵커가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왔다. 우리 모두 정말 깜짝 놀랐다. 생전 처음 외본 스튜디오보다 TV로 보던 앵커를 실제로 본 게 더 신기했다. 곧 시작될 생방송 준비로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함께 사진도 찍어주시고 친절하게 대화도 나눠주셨다. 감사했다.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 보도국을 둘러보는 것도 정말 설레는 일이었다. 보도국으로 들어서기 전, 프로페셔널한 기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건가? 기대했는데 이게 웬일, 때는 바야흐로 한여름인데 보도국 중앙에 낙엽이 돼지꼬리를 그리며 떨어지는 것 같았다. 썰렁했다.

주인 없는 빈 책상들 뿐. 뭐가 이렇게 행...하다냐? 어리둥절해지는 우리들에게 한정호 홍보팀장님은 오후 2시엔 모두 현장에 나가 취재하고 있을 시간이라고 하셨다. 기자들은 저녁 때가 되어야 취재를 마치고 보도국으로 돌아와 기사를 작성한다. 이 시간에 기자들이 여기 앉아 있으면 회사 망한 거라는 농담도 덧붙이셨다. 기자는 발로 뛰는 직업이라는 걸 새삼 깨닫는 순간이었다.

YTN견학에서 가장 인상 깊고 즐거웠던 것은 한정호 홍보팀장님과 만남이었다. 기자생활을 하면서 목숨이 위태로웠던 적이 있으셨느냐는 질문에 마치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을 풀어 놓으셨다. 흥미진진한 기자생활 경험담을 한참 신나게 듣다가 문득 궁금해져서 나도 모르게 진지하게 여쭙어보았다. "휴일은커녕 잠도 제대로 못자고, 목숨 걸고 시속120키로 밟아가며 취재경쟁도 해야 하고, 게다가 냉동 창고에 갇혀가면서까지... 도대체 그렇게 힘든 기자생활을 계속 하시려는 이유는 뭐가요?"

한정호 팀장님의 눈에 순간 진지함이 서렸다. "글쎄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 싶지만, 마약 같아요. 정말 매력 있어요. 내 생각이, 내가 쓴 글이 힘을 갖는다는 게 말이죠. 내 펜이 여론을 조성할 수 있고, 내 생각이 곧 공공의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매력적이죠. 그만큼 위험하기도 해요. 그래서 기자도 결국 '사람'이 중요합니다."

순간 예전에 읽었던 하인리히 뵐의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가 떠올랐던 건 왜일까? 진술하고도 무서운 답변이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언론인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언론인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 직업인지 짐작케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날 한정호 팀장님의 명언은 따로 있었다. "여러분, 만약 아직도 뭐가 되고 싶은지 꿈이 애매하다면 일단은... 토익부터 하세요! 토익은 보험입니다. 가서 영어 공부 좀 해! 영어!!!"

짧았지만 알찼던 YTN의 견학이 끝나고 건물 밖을 나서자 후텁지근한 여름공기가 훅~끼쳐왔다. 높고 견고한 프레임 밖으로, 다시 험겁고 평범한 일상으로 빠져나온 것 같았다. 나도 어서 빨리 '프로'라는 프레임 안으로 편입되고 싶다는 생각이 사무쳤다.

이번 YTN견학은 우리 대학(순천향대학교)의 진로개발 지원센터와 한국방송제작단의 '방송언론인 실무자 양성 과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방송언론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실제 현장을 직접 보여주고, 현장에서 뛰고 있는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해 그 일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을 넓힐 수 있는 경험을 만들어준다는 취지에서 올해 처음 개설된 프로그램이다. 이 좋은 프로그램에 운 좋게 1기로 참가하게 된 것만으로도 매우 기쁘고 감사했는데, 직접 현장에 가보니 기대 이상의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우게 됐다. 방송언론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YTN은 최고의 현장이 아닐까. 현장을 뛰고 있는 '프로'들을 대면하는 일이 얼마나 설레고 의미 있는 일인지 이번 견학을 통해 새삼 다시 한 번 느끼게 됐다.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YTN'을 'Yesterday, Today, Now'의 약자라고 한다던데, 난 왠지 'Your True Network'보다 이게 더 끌리는 것 같다. 뭔가 여운이 느껴지면서 시적이진 않은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시청자들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뉴스를 전하기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며 고생하시는 YTN의 모든 분들께 감사와 응원의 인사를 보낸다. 항상 건강하고 진실한 뉴스를 전해주시길. *^^*

윤보라 순천향대 국문학과 4년



헬로! 웨더야...!

'헬로 웨더'는
'신나는 휴가철! 어떤 것을 입고 떠나볼까?'
'비 내리는데 내 머리는 부스스...'
'아휴!답다! 짜증나는데 음악이나 듣고 기분 풀어야지!'

날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날씨는 생활 속 하나하나에 아주 깊이 연관되어져 있다!
날씨에 따라 생활 속에서 알아두면 좋을 뷰티, 패션, 건강,
음악 등의 정보를 알기 쉽게 담아낸 고품격 생활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헬로웨더' 여러분의 삶에 지혜가 생깁니다.



김하나님의 뇌구조

'헬로 웨더'

웨더 채널 개국을 준비하는 4명의 PD들이 모여 제작프로그래를 각 하나씩 전담하기로 정해진 회의시간. 경제, 국제, 레저, 생활..... 생활? 생활!

'저요! 저요! 제가 날씨와 생활을 맡아서 해보겠습니다' 웬지 모르게 내 색깔을 보여주기에 가장 좋을 것 같았다. 이렇게 탄생하게 된 YTN 웨더의 고품격 버라이어티 날씨와 생활정보 프로그램 '헬로 웨더...!'

주특기는 '버티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드디어 탄생한 '헬로 웨더...!'

출연자가 섭외되지 않아서 불안한 마음에 잠을 못 잤던 기억이 스친다. '섭외 핑크는 있어도 방송 핑크 나는 법은 없다'고 스스로 위로하며 다시 힘을 냈다. '마음껏 욕심내자. 어차피 이 프로그램은 내 색깔을 보여주려고 시작한 것이니 하고 싶은 대로 해보자.'라는 말을 되뇌면서 직접 선택한 프로그램을 갖고 고민의 시간은 정말 행복했다.

첫 방송이 나가기까지 내 특기인 '철야!' '밤새 편집하기' '밤새 일하기'가 빛을 발하였다. 방송을 하면서 생긴 내 별명은 '깡다구 김하나' 그동안 많은 다큐와 특집 프로

그램을 하면서 살인적인 스케줄과 방송 준비에 위협하고 지치는 순간이 항상 나의 삶이었지만 결국은 버텨내고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후배들이 지어 준 별명이었다.

'헬로 웨더'를 준비하면서는 덜하지만 말할 수 없이 몸은 지치고 힘들었다. 스스로 계속되어지는 욕심에 편집용 모니터에만 집중하느라 챙길 겨를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날씨는 7월 1일이 되었다. YTN 웨더의 개국과 함께 '헬로 웨더'가 방송됐다.

7월 1일 오전 7시 30분 첫 방송. 화면 속에서 울려 나오는 '헬로 웨더'의 첫인사. "안녕하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날씨 속의 생활 그리고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정보들로 가득 담아 찾아가게 될 헬로웨더의 첫 시간입니다."

'헬로 웨더'가 전하는 날씨 이야기

날씨 속에서 담을 수 있는 이야기들과 생활과 경제정보 그리고 문화소식들. 시청자가 많은 정보를 얻거나 또는 잠시 쉬어가거나 마음 편히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전달한다. 매일매일 색다른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담아내고 싶은 내용들이 많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루는 만큼 내 인생은 예전보다 훨씬 버라이어티해졌다.

헬로웨더 '날씨 속 명언을 외치다', '생활 속에서 꼭 알아두어야 한다', '날씨를 그리다', '음악과 이야기를 나누다', '날씨 속 영어를 배우다', '아름다움과 건강을 지키자',

'날씨 속 패션을 입다', '영화를 열다'.

'헬로 웨더'는 맑음

"나쁜 날씨란 없다. 어떤 날씨든 즐길 수 있다. 비 오는 날을 좋아하겠다고 생각하니 정말 좋아졌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날씨를 만들 수 없다면 차라리 하루하루 내게 주어지는 날씨를 맘껏 즐기는 편이 낫다"

올 여름 이상 기후로 인해 변한 날씨만큼이나 나도 많이 아주 많이 변했다. 잠이 많은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얼른 사무실에 나가서 일을 하고 싶고, 저녁에는 모든 업무를 다하고 퇴근을 해도 웬지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요즘은 정말 일에 푹 빠져 지내고 있다. 그것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말이다. 이제는 시청자를 생각하며 날씨와 관련된 모든 것에 나의 에너지를 쏟고 있다. 날씨 속에서 가장 필요한 정보를 전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절대 저버리지 않고 '헬로웨더'는 시청자에게 '맑음'을 전할 것이다.



김하나 <헬로 웨더> PD
YTN웨더

<방송시간> (월~금) 07:35, 18:35, 21:35





6개월 동안 펼쳐질 치열한 과학퀴즈 대장정!

9월 30일부터 YTN과 YTN사이언스 TV에서 방송 예정인 과학 퀴즈쇼! <사이언스 퀴즈쇼 15>. 5천만 원의 상금을 걸고 15명씩 24팀이 벌이는 6개월간의 치열한 과학 퀴즈대장정! 매주 시청자들에게 재미있는 과학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사이언스 퀴즈쇼 15>의 제작팀을 만났다! 뉴스채널 YTN에서는 흔치않은 정통 퀴즈프로그램! <사이언스 퀴즈쇼 15>. 우여곡절 많았던 준비과정과 <사이언스 퀴즈쇼 15>은 어떤 프로그램인지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안녕하세요. <사이언스 퀴즈쇼 15>의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이언스 퀴즈쇼 15>은 15명이 한 팀으로 이루어진 24개 팀이 참가, 매주 두 팀씩 퀴즈대결을 통해 24개 팀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종 우승하는 한 팀은 5천만 원의 상금을 거머쥐게 되는 신개념 과학 퀴즈프로그램입니다. MC는 김범수 전 SBS아나운서가 진행하며 첫 방송은 9월 23일 금요일에 YTN사

이언스 TV를 통해 방송됩니다.

그렇다면 <사이언스 퀴즈쇼 15>에 출연하는 팀은 어떤 팀들이가요?

출연 팀들은 대학교 동아리와 직장인 동호회,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직장 동료 등,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분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퀴즈도 풀면서 출연한 팀들의 활동 모습과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들어보는 공감 퀴즈쇼인 것이죠. 참고로 첫 녹화의 출연자들의 경우, 승무원과 호텔리어를 꿈꾸는 지망생들, 그리고 활발한 공연활동을 하는 판소리와 사물놀이 동호회 어르신 등이 출연했습니다. 이후로는 수업을 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나 인내력을 기르는 동호회 등 독특하고 다양한 종류의 모임을 가진 팀도 모시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퀴즈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이언스 퀴즈쇼 15>는 각 팀당 15명의 생존자 수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라운드는 총 3라운드로 진행

되고요. 1라운드 2장의 사진을 보고 정답을 선택하는 포토퀴즈, 2라운드 제시어를 선택해 푸는 제시어 선택 퀴즈를 풀게 되는데, 문제풀이에서 진 팀은 생존자 수가 감소합니다. 1, 2라운드를 거쳐 양 팀은 남은 생존자의 숫자대로 정예멤버를 선발해 3라운드 1대1 퀴즈대결을 벌여 최후의 1인이 남은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과학 퀴즈쇼, 어렵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과학은 어렵다. 복잡하고 머리 아프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섭외과정에서도 퀴즈쇼에 출연하고 싶지만 과학 퀴즈쇼라는 말에 난감한 반응을 보이는 출연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과학은 우리 일상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번개가 칠 때 안전한 장소는 어디일까요?' 같은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과학적 지식을 퀴즈에 적용시켰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문제를 맞혀서 즐겁고, 몰랐던 분들도 재미있는 과학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퀴즈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퀴즈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섭외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과학퀴즈쇼라는 말에 부담을 느껴 거절하는 분들도 있고, 새로 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아무리 프로그램 설명을 드려도 사기꾼 취급하는 곳까지 있었거든요. 하지만 과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퀴즈를 좋아하는 몇몇 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계속 출연 팀을 모집하고 있는데 무사히 24팀의 참가자들이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 24일에 첫 녹화를 했는데 소감과 에피소드가 있다면?

첫 녹화이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다들 처음 호흡을 맞추다 보니 본 녹화가 3시간이나 지체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무사히 녹화는 마쳤지만 오랜

시간동안 묵묵히 기다려주신 출연자들에게 미안하기도,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또 출연자 중 인터뷰가 예정돼 있던 학생이 대기실에서는 말도 잘하고 까불거리 걱정을 전혀 안했었는데요, 막상 녹화에서는 얼굴이 빨개져서 한마디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 제작진을 당황시키기도 했습니다.

첫 시작을 하는 <사이언스 퀴즈쇼 15> 앞으로의 계획은?

전 국민이 함께 하는 과학퀴즈 대결이라는 캐치프레이즈처럼 많은 사람들이 퀴즈를 통해 과학을 보다 재밌게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 저희가 진행 상황에 따라 상금이 1억으로 올라가게 될 수도 있는데요. 시청자분들의 많은 관심이 있다면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YTN에 계신 여러분도 저희 퀴즈쇼에 함께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황종성 <사이언스 퀴즈쇼 15> 작가

<방송시간> YTN사이언스 (금) 11:00, 18:00 / (토) 09:00, 22:00 / (일) 11:00



“어디 핫한 아이템 없어?”

프로그램의 이름이 그냥 나침반이었으면 어땠을까를 가끔 생각한다. 정보는 필요 이상으로 인터넷에 넘치는 세상이고 TV의 프로그램 채널 역시도 선택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런 가운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알고 싶어 하는 이야기들로 두 코너를 진행하고 있다. ‘라이프 플러스’와 ‘하이라이스’ 한 프로그램 안의 두 코너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이템을 잡을 때부터 서로 다른 이야기를 보여주고자 노력한다. 일주일에 한 번,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겨우 한 번이지만 평균 촬영장소가 3~4군데, 일주일에 섭외하고 촬영하기만도 정말 빠듯한 시간이다. 거기다 프로그램의 이름에 걸맞게 ‘황금 나침반’스러운지 아이템 회의에서 결정된다.

어디 핫한 아이템 없어? ‘라이프 플러스’ 이근희 작가

길을 걷다가 신기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쇼핑을 하다 특별한 아이템이 있는 매장을 발견했을 때, 그리고 밥을 먹다가 독특한 요리 재료를 발견했을 때, (직업병일지도 모르지만) 순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진다. “이런 내용으로 꾸미면 재밌겠네.” “이런 상황을 주면 더 눈길을 끌겠지.”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생각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일상 속에서 만난 그곳은 다음 회 방송의 아이템이 되기도 한다. 사실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매년 새로운 것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에 스트레스가 끊이지 않는 날이 없다. 하지만

작지만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엮어가는 재미에 힘들었던 일은 어느새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가끔은 시청자들의 피드백이 힘이 되기도 한다. 빠듯한 제작 스케줄에 견딜 수 없을 만큼 지쳤을 때, 시청자들의 촬영장소 연락처 요청 글과 방송되었던 장소를 직접 찾아가봤다는 후기를 보게 되면 어찌나 힘이 나던지. 역시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시청자들의 반응은 고래도 춤추게 할 만큼의 최고의 칭찬이 아닐까 싶다.

많은 사람과 정보를 공유하고 웃고 즐겼던, 황금 나침반 <라이프 플러스>. 이렇게 만들어진 방송이 어느덧 80회를 넘어섰다.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제작진들은 새로운 정보와 숨겨진 보석을 찾아내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캐내기 위해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묻곤 한다. “어디 핫한 아이템 없어?”

쌀, 가깝고도 먼 아이템_ ‘하이라이스’ 김은영작가

나도 처음에 이 코너 제목을 듣고는 카레라이스와 비슷한 그 하이라이스인 줄 알았다. 농림부와 함께 쌀 소비 촉진이라는 가제가 붙어 있는 하이라이스~. 밥이야 늘 먹고 있고 한국인하면 밥이란 생각은 누구나 하고 있으니 처음 이 코너를 맡았을 때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식은죽 먹기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오히려 쌀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나는 한국 사람에게 얼마나 쌀이 떨어져 있는가를 더 느끼곤 한다. 쌀의 소비가



왼쪽부터 PD 박선연, AD 김영주, 작가 김은영, PD 이등걸, 작가 이근희

줄고 있다는 기사를 보면 겁이 덜컥 날 정도로 1년이 넘게 이 코너를 진행하면서 나는 쌀홍보대사가 되어 있는 듯하다.

아이템 선정시 제일 처음 시작이 검색창에 ‘쌀’이라고 쳐보곤 한다. 매일매일 쌀을 체크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일을 하면서 새로 생긴 버릇이다. 처음 일을 할 때는 쌀의 장점만을 내세웠다면 이제는 정말 스스로에게 되묻는다. 쌀 소비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 농민들이 쌀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일하면서 더더욱 막중해지는 ‘쌀’의 무게를 느끼곤 한다. 쌀을 먹지 않으면 김치도 먹지 않을 것이고 다른 농산물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된 것이다.

처음으로 쌀 칼국수를 시도한 사장님과 취재전화를 할 때가 생각이 난다. “저희 집이 대대로 농사를 짓는 집이에요. 쌀 한 톨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밥 말고 다른 거 먹을 길이 없을까를 생각하다가 만들게 됐어요. 이렇게 반죽하려고 실패한 반죽도

많았어요. 정말 울면서 버렸어요” 마음이 찌르르했던 것 같다. 방송작가로서 일을 하다 보면 감정을 최대한 빼야 할 때가 있다. 하지만 지금 ‘하이라이스’라는 코너를 하면서 농사를 짓고, 누구든 말리는 쌀 제품을 새롭게 개발하고, 쌀 한 톨의 귀중함을 아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그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물론 내가 도움을 받을 때가 방송적으로 많기는 하다.) 항상 방송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한다. 하루아침에 아침 밥을 먹지 않는 사람이 밥으로 아침을 먹고 쌀 제품을 사주고 하는 것까지는 욕심이다. 다만, 우리의 방송을 보고 ‘따끈한 밥과 김치가 먹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방송의 목적은 이룬 셈인 것 같다. 앞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도록 더 노력해야겠지만...

이근희 <황금 나침반> 작가



<방송시간> YTN(일) 07:30 / YTN사이언스(목) 11:30, 17:30
 <제작의도> 인간의 뇌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 엔도르핀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고 웃게 한다는데... 보면 볼수록 재미와 즐거움이 느껴지는 프로그램 지향! 또한 우리 주변에서 지나치기 쉬운 작은 주제나 소재들, 정보와 유행에 민감한 주제들로부터 아이템을 선정하여 시청자들에게 흥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YTN FM - 최신 이슈와 화제의 인물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준다 <이슈 & 피플>

사람없는 이슈가 어디 있나~!

며칠 전 언론인을 꿈꾸는 후배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태풍이 나서 사람이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과정이 더 궁금하면 <기자>가 되고, 죽은 사람의 인생과 그의 마지막 이야기가 궁금하면 <피디>를 해라”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사람에 대한 무한한 관심과 애정은 나에게 피디라는 직업을 갖게 했다. 피디는 날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리고 냉철한 시각으로 사람을 봐야 하는 기자보다는 조금은 더 따뜻하게 애정을 갖고 그들의 인생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슈 & 피플>(월~금 오후 19시15분~20시)은 피디가 신바람 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매일 듣는 수많은 이야기의 주인공을 찾아 그 이야기 뒤에 숨은 또 다른 이야기를 찾아내 청취자에게 들려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대중문화인부터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이웃들까지... <이슈 & 피플>을 통해 만나는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양하다. 제작진은 하루 동안 사람들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화제의 사람들을 하루에 두 명씩 선정해 섭외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끄집어 낼만한 인터뷰를 준비한다. 이때!! 사람들은 벌써 인터넷과 뉴스를 통해 화제 인물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숨겨진 이야기, 신선한 이야기를 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진행자인 최수호 앵커는 오랜 기자경험으로 얻은 인터뷰 기술을 총동원해 사람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낸다. 때로는 작가와 피디도 예상하지 못한 날카로운 질문으로 인터뷰이를 당황시키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답변을 얻어내기도 한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준비한 작가의 질문과 관록에서 나오는 진행자의 노련한 질문으로 청취자들은 인터뷰이의 새로운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다.

최근 인터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는 데뷔 30주년 만에 솔로연주 음반을 내는 기타리스트 함춘호씨였다. 함춘호씨는 최고의 기타리스트지만 사실 사람들은 그에게 관심을 별로 두지 않았다. 가수에게 쏟는 관심에 비해 연주자에게 쏟는 관심이 아주 적기 때문이다. 함춘호씨는 그런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려하는 <이슈 & 피플>에 고마워하며 연주자로서의 삶, 그리고 대한민국 음악계에서 차지하는 연주자의 위치에 대해 허심탄회한 자신의 속이야기를 털어냈다.

퇴근길, 사람냄새 가득한 이슈 & 피플

종교방송에서 보도방송으로 옮기자마자 <이슈 & 피플>을 맡은 것은 나에게 큰 행운이었다. ‘사람냄새’ 가득한 인터뷰 프로그램은 내 전공이니까.

그런데 이제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 담당피디로 동지를 옮기게 됐다. 처음에는 시사프로그램인 <출발 새아침>은 <이슈 & 피플>에 비해 차갑고 딱딱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무겁게만 느껴졌는데, 생각해보니 그 안에도 청취자에게 들려줄 수 있는 사람 사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사람이 없는 이슈가 어디 있겠는가. 그 이슈 뒤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 이슈와 관련된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끄집어 청취자에게 들려주는 것. 이것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하는 피디의 변하지 않는 임무다.

김혜민 PD YTN 라디오 뉴스제작팀

<방송시간>
YTN FM (월~금)
19:15~20:00

<제작진>
진행 최수호, 작가 안향주,
PD 주현정



경영전문가 공병호



기타리스트 함춘호



미국 ABC뉴스 한국 지국장 조주희



과학자 정재승

기억에 남았던 출연자 BEST 3

<아름답게 욕망하라. 조주희>

대한민국 대표 외신 기자, 미국 ABC뉴스 현 한국 지국장인 조주희씨는 최근 <아름답게 욕망하라>는 책을 냈다. 평소 그녀에 대한 관심은 자연히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책을 통해 그녀에 대해 알게 됐다. 그녀의 트위터에 인터뷰 요청을 남기고 얼마안돼 그녀가 직접 답을 해왔고 어렵지 않게 스튜디오에 모실 수 있었다. 스튜디오에 나온 그녀는 책 표지에 나온 화려한 모습 대신 화장기 없는 수수한 모습이었지만 작은체구에서 나오는 그녀의 포스(?)에서 “조주희” 이름 석자가 가진 브랜드 파워를 느낄 수 있었다. 인터뷰 끝에 그녀에게 그녀가 갖고 있는 새로운 욕망이 무엇이고 물었더니 “쉬고싶은게 새로운 욕망이다”라고 대답했다. “쉬고싶다”는 그녀의 새로운 욕망이 그녀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치열하게 삶을 살아왔는지 알 수 있게 해줬다. 그녀의 새로운 욕망, 아름답게 이뤄지길 응원한다.

<과학콘서트 10주년 생일 파티.. 정재승 교수>

지금의 정재승 교수를 있게 한 책 <과학콘서트>가 10주년 개정증보판을 내고 교보문고에서 심주년 생일 파티를 했다. 정 교수는 이날, 굉장히 감격스러워 보였다. 사실 책이 출대받는 요즘같은 때에 스테디셀러의 저자가 된다는 건 당연한 감격스러운 일이다. 직접 본 정재승 교수는 책에서 자본자본, 친절하게 과학을 설명해주던 모습과 똑같이 친절하고 다정다감했다. 그리고 부드러운 외모와는 다르게 그 안에 뜨거운 열정도 느껴졌다. 나이가 들 수록, 학력 수준이 높을 수록, 사회적 위치가 높을 수록, 직업이 전문적일 수록 가장 못하는 것이 있다. 바로 자신의 프레임을 넘어 새로운 세상을 보는 일이다. 과학자 정재승은 <과학>이라는 프레임을 넘어 다른 학문과의 연계를 꿈꾼다. 그리고 <과학>이라는 높은 프레임을 대중의 눈에 맞춰 낮추는 작업을 끊임없이 한다. 이러한 면에서 과학에 대해 잘 모르는 나에게 정재승 교수는 늘 기대가 되는 인물이다.

<거리의 그들이 운동장을 달린다... 노숙인 월드컵 국가대표>

우리 누구나 꿈꿀 수 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갈 권리가 있다. 하지만 꿈조차 꿀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사회에 있다. 바로 거리의 사람들 ‘노숙인’이다. 게으르다고 손가락질 받고, 꿈꾸지 않는다고... 열심히 살지 않는다고, 손가락질 받는 노숙인들이 새로운 꿈을 꾸는 현장. ‘노숙인 월드컵 국가대표’팀을 만나봤다. 아무리 노숙인 축구단이라해도 축구선수라고 하기에는 그들은 너무 작았고 너무 초라해보였다. 처음 봤을때에는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노숙인 아저씨였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승리를 원하는 간절한 눈빛이었다. 처음 ‘노숙인월드컵’을 취재해야겠다고 했을때 “무슨 월드컵이냐” 그러려면 재빨리나 하지...라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작전회의에 임하며 연습에 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축구’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도전 기회와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서울시장 김주호 대표이사와 함께

현장에서 배워요...

'미래를 여는 아이들'

우리나라 외교관 중에는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반기문이에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아이들에게서 대답이 터져 나온다. 곧 이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이 이어지고 아이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의 역할과 기능을 머릿속에 새긴다. 옆에서 지켜보던 학부모들의 얼굴엔 흐뭇한 웃음이 번진다. 지난 7월 22일 외교사료관에서 있었던 '디지털YTN 미래를 여는 아이들' 체험학습 현장의 모습이다.

디지털YTN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4월부터 운영 중이다. 디지털YTN의 체험학습 사업은 내년부터 초중고 '전면 주 5일 수업' 시행으로 연중 주말연휴가 되면서 벌써부터 학부모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지자체, 학교, 여행사 등 관련업계에서도 주말을 이용한 체험학습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고 이미 꽤 많은 업체가 초·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프로그램들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YTN은 올해 초 체험학습사업을 시작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마케팅, 홍보를 통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YTN의 체험학습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와 연계된 사회, 역사, 과학, 생태, 문화예술 등의 테마별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교육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반일반, 종일반, 방학캠프 등의 형태로 프로그램에 참가하며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조선의 5대 궁궐과

선사시대, 삼국시대의 유적지를 찾아가는 역사체험, 나라일을 맡아 하는 기관(국회, 법원, 청와대)들을 공부하는 삼권분립시리즈, 미래의 직업을 꿈꿔보게 만드는 직업의 세계 시리즈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체험학습 참여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YTN은 다양한 방법으로 마케팅활동을 벌이고 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이 자주 이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여행사 등과 업무제휴를 통한 유통망을 넓히고 있다. 또, 기업의 현장견학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한국야쿠르트와 함께 '야쿠르트 역사체험단' 행사를 1, 2차에 걸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추가 행사를 논의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카드사와의 프로모션제휴, 지방자치단체와의 새로운 체험학습 상품개발, 그리고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게 무료로 체험학습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체험학습의 사업 영역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체험학습 현장을 진행하는 과정에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수업에 필요한 교재를 직접 제작하고 각 선생님들은 교육내용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효율적인 수업을 위해 아이들을 학년별로 구분하여 적절한 인원으로 반을 구성하며, 차량 및 식당, 보험가입 등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준비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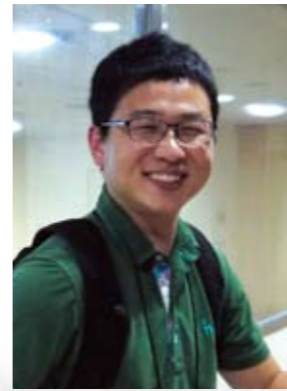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학부모들에게 체험학습의 대한 설명



을 하고 체험학습을 시작할 때에는 아이들의 집중력을 키우기 위하여 학부모와 분리하여 정해진 동선을 따라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나눠준 교재를 참고하며 궁금한 것은 바로 질문을 한다. 교과서로만 배웠던 것들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함으로써 그 기억은 더 오래 간다. 이것이 아마 체험학습이 주목을 받는 이유일 것이다.

현장에서 만난 일부 학부모들은 디지털YTN 같은 곳에서 체험학습을 운영하니 더 믿음이 가고 신뢰가 쌓인다고 이야기 한다. 다른 언론사에서도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디지털YTN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단순한 사업성만을 추구하지 않고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며 품격 높은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있어 참여 학부모들 사이에 호평을 받고 있다.

'디지털YTN 미래를 여는 아이들'의 체험학습은 보다 완벽한 체험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많은 기획 아이디어들 중 10%만 실행에 옮겨지고, 또 그 중에서도 10%만 '좋은' 결과로 나타나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팀원들이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 중이다.



권영도
디지털YTN
미디어사업팀



포토 뉴스



제3회 고등학생 영어토론대회(7.23~24)
YTN과 한국외국어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3회 고등학생 영어토론대회' 모두 69개 팀, 207명이 참가해, 국가 안보와 환경 등 어려운 주제를 놓고 열전을 벌여 대원외국어고등학교 '리얼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제2회 중학생 영어토론대회(8.20~21)
YTN과 한국외국어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2회 중학생 영어토론대회에서 외국 체류경험이 없는 국내파 학생들로 구성된 '루비콘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 104개 팀, 312명이 참가해 다양한 주제를 놓고 경합을 벌였다.



2011 세계보도사진전(8.1~28)
YTN과 세계보도사진재단, 동아일보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1 세계보도사진전'이 8월 1일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V갤러리에서 시작했다. 이전 사진전에는 세계 125개국의 작품 10만 여점 가운데 수상작 170여 점이 전시된다.



YTN 미디어센터 지하연속벽
철근망 설치(8.5)
8월 5일 배석규 사장과 국실장 등 임직원이 참석한 참석한 가운데 (지하연속벽 철근망 설치) 행사를 가졌다. (지하연속벽은 지하층 외벽 구조체로 땅을 파기전에 미리 외벽을 설치함으로써 흩막이 역할을 하고 본 공사의 외벽 구조체로 이용되는 벽체를 말함)



2011 모의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8.10~12)
YTN과 고려대학교가 공동 주최한 모의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국내외 고등학생과 대학생 6백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서 뛰어난 토론 능력을 보여 선발된 학생들은 오는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제 1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가하게 된다.



추석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9.1)
미디어사업국은 지난 1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 중구 예장동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남산원'과 재가(在家) 장애인 봉사단체인 '어우러기'에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기방, 필기구, 텀블러 등의 학용품과 간식 등을 전달했다. 이날 준비한 학용품은 2011 모의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행사 기념품 중 진여 수량으로 마련했다.



2011년 YTN 임금협약조인식(9.2)

계시판_퇴사

김진우 차장 국제부 9.9 / 박관우 차장대우 영상취재부 8.16 / 윤해남 사이언스TV 본부 뉴스제작팀 7.29 / 노일환, 정혜진 영상편집부 7.27 / 김명우 사회1부 7.22